

# 칸 화제작 영화 '호프' 촬영지 해남에 테마거리 조성

### 군, 북평면 남창 일원 70~80년대 문화의 거리 재현 천혜 문화자원·영화적 서사 결합 관광 명소화 추진

칸 영화제를 뒤흔든 나홍진 감독의 신작영화 '호프'가 주 촬영지인 해남 북평면 남창리 일원에 문화의 거리로 재현된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황정민 분)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마음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은 SF액션 스릴러이다.

영화 '호프'는 제79회 칸 영화제에 경쟁작에 초청돼 최고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화제작으로, 후반 작업을 마치고 오는 7월 경 국내 개봉 예정이다.

해남군은 이에 발맞춰 남창리 일원을 영화 호프와 연계한 70~80년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 속 배경이자 비무장지대 호포항의 주 무대는 해남 북평면 남창리 일원으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3개월여간 주

연배우들이 지역에 머물며 촬영을 진행했다.

군은 북평면 문화의 거리를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지역이 지닌 천혜의 문화자원과 영화적 서사를 결합해 독창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북평면 소재지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공간이다. 군은 오래된 터미널 건물을 영화 '호프' 속 주요 배경이자 상징적 공간인 '파출소' 콘셉트로 전면 리모델링한다.

영화 속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을 위한 이색 안내소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영화 촬영 당시의 간판으로 교체하고, 영화 속 등장하는 괴생명체 등을 조성함으로써 볼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화 당시 촬영 소품인 스틸라 경찰차, 외계인 모형물, 체험형 콘텐



나홍진 감독의 신작영화 '호프'가 주 촬영지인 해남 북평면 남창리 일원에 문화의 거리로 재현된다.

사진제공=해남군청

츠를 배치해 방문객들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광객의 편의와 스토리텔링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거리 진입로와 주요 거점에는 영화의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 안내판이 설치되며,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을 통해 도보

관광의 편의성을 높인다.

남창 일원의 달랑진성당 해월루 등 역사문화자원과 빼어난 해안 테크길 등에도 포토존 등을 설치해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구성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영화 '호프'가 가진 독창적인 문

화 콘텐트를 우리 지역의

자원과 결합한 상생형 관광 모델이다"며 "터미널 리모델링부터 해변 포토존까지 내실 있게 준비해 해남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북평면 남창 달랑진성 해월루 일원 전경.

## 영암 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금융권 협력

### 지역 금융기관과 간담회...주민 참여형 금융지원 모색

영암군과 영암군에너지센터는 최근 삼호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산호·미암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 농·축협과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주민 참여형

금융구조 설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주민 자본 참여형 금융구조 설계, 집적화단지 PF 투자 참여방안, 지역 금융권 협력 확대 방안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금융권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주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주민

자부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총사업비의 85%를 정책자금으로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5%는 마을이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군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금융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영암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금융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

## 장보고장학회, 기금 목표액 200억 달성

### 완도 학생 104명에 1억 전달

(재)장보고장학회(이사장 신우철)는 최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장보고 장학회 상반기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는 지역 학교 출신 고교 및 대학 신입생, 성적 우수 및 취약계층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된 상반기

장학생 총 104명에게 1억여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장보고장학회는 많은 학생들이 장학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18개 장학 사업에 20억5000만원을 지원해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설립된 장보고장학회는 군민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장학 기금 목표액인 200여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

진도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54억원을 확보했다. 해수부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양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첨단 친환경 양식 체계(시스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도군은 수온과 조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서도 김 종자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김종자 생산 및 육상채묘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인력 투

입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어 안정적인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양식어업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장보고장학회는 최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장보고 장학회 상반기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완도군청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러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최 **광남일보** **도리투데이**

주관 **광남일보**

후원 **전라남도**